

문제 1

1. 지금 비교에서 (가) 와 (다)를 극단적으로 구분시키고 조화로써 (나)가 중립적 자세를 취한다고 하셨는데, “제시문 (다)는 (가)와 반대로 오직 인위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름답다고 말한다. (다)는 르네상스 시대의 우아함을 연출하는 행동이 모두 인위적으로 의도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인공미를 자연미보다 우위에 두는 미적 견해로서 (가)가 보이는 미적 견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답안 서술 내용을 보면, 틀린말이 아니라고 보이는 것이지. 사실상 틀린 말입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인위적 아름다움을 예찬하지만 겉보기엔 자연스러워 보여야 한다면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자체도 ‘우아함’을 구성하는 요소로 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논지의 방향이 제시문과 반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전체적인 비교 자체가 틀려버렸습니다.

2.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1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논지 이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첨삭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문제 2

1. 지금 답안 자체가 발문에 따른 요구서술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제시문의 관점을 통해 (라)를 바라보고, 이를 통해 다시 (가)를 비판해야 되는데.

“ 제시문 (라)의 두 그림은 각각 자연미와 인공미를 상징한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가공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미를 나타내고,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세공기술을 통해 인강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미를 나타낸다. 우선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두 다이아몬드 중 더 아름다운 것은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다. (가)는 인공미를 배척하고 오직 자연미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강의 기술로 만들어진 물방울 다이아몬드 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것이다.” 처음부터 인공미와 자연미를 상징한다고 서술을 해버렸습니다. 물방울 다이아는 (나)에 따르면 자연과 인공의 조화로 봐야됩니다. 자연원석을 인공미를 기미해 만든 것이고, (다)의 원석도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원석을 캐낸 입장으로 인공미가 숨어있다고 봐야되죠. 따라서 처음부터 발문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제시문을 바라봄으로써 대응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글 또한 1번과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틀려버린 답안으로 보여집니다.